

## ‘광주형 일자리’ 다음주 투자협약 체결 기대

광주시·지역 노동계 극적 합의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  
현대차와 재협상 최종합의 남아 ... 민주노총·노조 설득 과제

광주에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극적 합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르면 다음주 초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첫 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군산, 거제 등 일자리 기근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각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자리 창출 모형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1년이 넘는 산고 끝에 비로소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경제계, 노동계 전반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윤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 구성원들은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진행된 제3차 원탁회의에서 현대차와 협상한 투자협약서(안)를 수정·보완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하는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광주시는 현대차와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함에 따라 향후 광

주시가 현대차와의 추가 협상은 늦어도 다음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해 의장은 “지역노동계가 현대차의 제안에 대해 대응적으로 수용했고, 나머지도 광주시와 통 큰 합의를 이뤄냈다”며 “투자유치추진단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향후 투자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그 안에 투자협상팀을 두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도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유치추진단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이기근 전 기아차 지회장,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박병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성공적 투자유치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되, 현대차와의 협상을 직접 담당할 협상팀의 구성과 협의는 광주시가 맡았다.

또 시는 제2차 원탁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제안했던 가정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건의와 노정간의 상시대화기구인 가정 ‘노동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반면, 이번 합의문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계는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현대차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지역 노동계가 다시 이탈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계속 유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움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불공정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

렀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북미 2차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판결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왕립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중고·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욱·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현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피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희대·박상욱 대법관도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은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반대의견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낸 무죄의견이 최종결론이 됐다. /연합뉴스

##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내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서 개최

올해 첫 정부행사 격상

올해 첫 정부행사로 격상된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오전 10시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일 밝혔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각계 대표와 독립유공자,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보훈처 주관으로 첫 정부행사로 격상돼 열린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그동안 지방교육청이 개최해왔다.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보훈처는 차별과 불의에 맞서 일어난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학생이 지켜온 정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첫 정부기념식을 계기로 6명의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를 발굴했다. 기념식에서 후손이 확인된 고(故) 조아라·윤오레 여사 등 3명에 대해 포상한다. 보훈처는 “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인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기념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시 독립운동에 주로 참여했던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기념식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학생 신분으로 광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노동운동 애국지사 집을 방문해 ‘독립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줄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신발도유람  
- 제주의 보물섬 추자도·마라도 ▶18면  
손흥민 드디어 터졌다  
- 10경기 만에 시즌 1·2호 골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Shinsung Motors Safety First Campaign

#### 신성자동차 고객 감사 안전 캠페인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신성자동차만의 안전 이벤트!  
신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주세요!

신성자동차 세이프티 1st 캠페인

- 일시 : 2018.10.15~2018.11.30
- 대상 :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전 지점

안전 주요 항목  
무상 점검

엔진오일  
업그레이드

Collection  
Event

세이프티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